

解放期 詩文學 研究(I)

—「三一紀念詩集」을 중심으로—

吳 養 鎬*

〈차 례〉

I. 서론

2. 「三一紀念詩集」에 나타난 시의 보편성

II. 본론

III. 결론

1. 치욕적인 역사에 대한 검증

I. 서론

1945년의 8·15가 지나는 의미는 어떤 수식어로도 수사가 불가능하다. 감격과 혼란으로 뒤덮힌 사회가 거의 이성을 잃었고, 일체에 의해 묶였던, 이념이 풀리면서 또 한번 갈등을 겪어야 했던 시기가 이 해방기이다.

해방기의 시문학은 이런 시대의 맨 앞자리에 서 있다. 이 문제는 1946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여러 시집에서 쉽게 드러나는데,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몇 시집에서 그 예를 찾는다면, 「前衛詩人集」¹⁾, 「三一 紀念詩集」 「心火」²⁾, 「窓」³⁾, 「隊列」⁴⁾, 「獄門이 열린던 날」⁵⁾ 과 같은 시집이

▪ 인천대학교 교수

1) 金光現, 金尙勳, 李秉哲, 朴山雲, 俞鎮五. 이 5인의 시 25 편과 임화의 서문, 오장환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노농사. 1946. 73쪽)

2) 朴芽枝, 〈心火〉(우리文學社. 1946. 90쪽) 3부로 구성되어 있고, 머릿말과 도합 25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3) 俞鎮五 詩集, 〈窓〉(正音社. 1948. 95쪽) 曹雲의 서문과 저자의 발문이 있고, 버섯, 불길, 소, 재상으로 나누어진 장에 각각 4, 6, 5, 6, 편의 시(도합 21편)가 수록되어 있다.

4) 金尙勳 詩集, 〈隊列〉(靑丘. 1947. 99쪽) 임화의 서문과 柳鐘大의 후기가 있고, 도합 45편의 시가 3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 예이다. 위의 시집들을 낸 시인들은 모두 해방기에 이념적 갈등에 고민하다가 북으로 떠난 문인들이다. 이런 시집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복잡하고 미묘하기에 하나하나 따져본 후 평가를 내려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해방기에서 시인들이 견지하고 있던 신념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선 이들 시인들의 실천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실천성이 시인의 시대인식에 근거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마침내 주목해야 할 문제는 작가의식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三一紀念詩集」을 통해 고찰해 보겠다.

「三一紀念詩集」은 조선문학가동맹이 1946년 3월 1일 건설출판사를 통해 발행한 시집이다. 서문도 없고, 후기도 없는 62쪽의 알팍한 시집이다. 발행자 趙碧岩은 거두절미 16인의 시 16편만 실었다. 이런 점은 1945년에 간행된 〈解放紀念詩集〉이 이현구의 명문의 서문이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시집에 실린 시인명과 작품명은 다음과 같다.

- 〈獅子같은 羊〉(權煥)
- 〈三一날이어 가슴 아프다〉(金光均)
- 〈榮光스러운 三月〉(金起林)
- 〈追想〉(金相瑗)
- 〈해마다 피는 꽃〉(金容浩)
- 〈民族의 노래〉(金哲洙)
- 〈再排하오리〉(李治)
- 〈나리에 슬픔 있을 때〉(李庸岳)
- 〈三月一日이 온다〉(林和)
- 〈三一節 아침〉(林炳哲)
- 〈烽起〉(朴世永)

5) 常民詩集, 〈獄門이열리던 날〉(新學社, 1948. 144쪽) 金尙勳의 발문이 있고, 작품 수는 25편이다.

〈革命〉(徐廷柱)

〈三代〉(辛夕汀)

〈나의 길〉(吳章煥)

〈族史의 斷想〉(趙碧岩)

〈三月의 太陽이어〉(趙虛林)

이상 16인의 시인 중 해방기에서 활동하다가 서울에 그냥 남은 사람은 김광균, 김용호, 서정주, 신석정 등 몇 사람뿐이다.

북으로 간 시인들은 해방을 맞으면서 앞 시대와는 상당히 이질적인 시집들은 상재했다. 곧 권환의 「凍結」, 임화의 「讚歌」,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조벽암의 「地熱」 등은 해방기란 특수한 상황이 시인들의 시대체형과 조우하고 있는 시집들이다.⁶⁾ 「三一紀念詩集」의 경우도 그 대체적인 성향이 이런 시집들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이 글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해방기에 왕성한 작품활동을 했던 시인들의 작가의식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 「三一紀念詩集」을 이 시기 시문학 연구에서 제일 먼저 택한 것은 이 시집이 해방기에 시인들이 보인 가장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⁷⁾

II.본론

1. 치욕적인 역사에 대한 검증

6) 이런 단정은 작품론을 쓴 후 결론에서 언급할 말이다. 그러나 이런 시집을 한번이라도 대독자는 이들 시집이 향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당장 깨닫게 될 것이다.

7) 첫번째는 1945년 12월 12일에 발행된 「해방기념시집」이고, 두번째는 박아지의 「심화」(1946. 3)라 하겠다. 노동사 5인 합동시집 「전위시인집」은 1946년 12월에 나왔다.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靑鹿集」(울유문화사. 1946. 6), 「바다와 나비」(신문화연구소. 1946. 4), 「陸史 詩集」(서울출판사. 1946. 10) 등 1946년판 시집들이 해방기 시문학에 특별한 자리에 있음을 안다. 그러나 이런 시집에 대한 논의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시킬 수 있기에 글을 달리한다.

일본이 한국민의 자존심을 또다시 자극하고 있다. 1995년 초에는 일본의 자민당과 신진당 일부 의원들을 비롯, 우익세력들이 국회에서 태평양 전쟁 사죄 결의 반대 의원연맹을 결성하자 이에 동조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벌어졌고, 또 일본의 참의원 中村銳一이 고베시 지진 때 (1995. 1) 1920년대의 關東 대지진 운운하며 한국인이 방화했다는 발언을 했다. 한편 올해 (1996)는 년초부터 獨島를 둘러싸고 양국의 난감한 관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해방 51주년을 맞았다. 이런 정치사적인 문제가 문학의 경우는 「解放 紀念詩集」과 「三一紀念詩集」과 같은 자료로 남아있다.⁸⁾ 「三一紀念詩集」을 펼치면 8.15 해방의 도래를 가장 극적으로 노래하는 시가 이용악의 〈나라에 슬픔 있을 때〉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용악은 토속적인 제재로 가장 한국적인 정한을 창조하는 시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⁹⁾ 그러나 〈나라에 슬픔 있을 때〉는 구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를 빌어 한국해방이 신의 가호로 이루어진 축복받은 사건임을 노래한다.

자유의 적 꼬레이어를 물리치고저
 끝끝내 호올로 일어선 다뱃데는 소년이였다.
 손어귀에 감기는 단 한 개의 돌맹이와
 팔매스줄 둘러메고
 원수를 향해 성낸 짐승처럼 내달린
 다뱃데는 이스라엘의 소년이였다.
 나라에 또다시 슬픔이 있어
 떨리는 손스등에 불타구니에 이마에
 싸락눈 함부로 휘날리고 바람 매짜고
 피가 흘러 숨은 골목 어디선가 성낸사람들

8) 「解放紀念詩集」과 「三一紀念詩集」에서 ‘기념’의 표기가 記念과 紀念으로 다르다.

9) 尹永川, 〈민족시의 진진과 좌절〉(이용악시 전집, 창작과 비평사, 1988) 참조.

동포끼리 웁잖은 피가 흘러
저마다의 가슴에 또다시 쏟아져 내리는
어둠을 헤쳐며 생각하는 것은 다만 다뱌데
이미 아모것도 갖지못한 우리

일제히 시장한 허리를 졸라맨 여러가지의
띠를 풀어 탄탄히 돌을 감자
나아가자 원수를 향해 우리 나아가자
단하나씩의 돌맹일지라도 틀림없는
꼬레이어의 이마에 던지자.(방점 원문)

— 이용악, 〈나라에 슬픔 있을 때〉 전문

이 시는 구약성경 사무엘 상권 17장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가 제재로 되어 있다.¹⁰⁾

기원전 브렛셋(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양치기 소년 다뱌데(다윗)은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해 먹을 것을 가지고 전장으로 나간다. 그런데 그때 그는 적장 골리앗(꼬레이어)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을 발견하고, 늑대를 쫓을 때 쓰는 줄팔매에 돌을 달아 던져 적장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춰 넘어뜨리고, 그 목을 베어 나라에 바친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드디어 이 거인이 제거됨으로써 이루어 진다. 이 시는 구약의 이런 내력이 모티프로 되어 있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너를 벌한다’며 던진 돌에 투구 밑 급소를 정통으로 맞고 쓰러진 거인 골리앗. 이 신의 가호로 이긴 전쟁으로 하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끊임없

10) 구약, 사무엘(상), 17장 4절 - 49절.

다윗이 브렛셋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단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스라엘과 브렛셋(팔레스타인)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을 양치기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물리친 이야기. 신의 가호가 막강한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의미.

는 침략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빌어온 이 모티프가 주는 궁극적 내포는 무엇인가.

이용악은 3·1 운동에 참가했던 열혈 청년들을 다윗에 비유하고 있다. 젊고, 용감하고 정의감에 불탔고,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앞에 몸을 던진 애국 청년들의 행적을 다윗의 그것과 일치시키고 있다. 3·1 운동에 참가했던 우리 민족은 맨몸이었다. 갑옷으로 무장한 꼬레이어(골리앗) 앞에 어린 목동으로 맞섰던 다비데처럼 독립을 하겠다는 우리의 항쟁이 기껏 양손에 돌맹이를 든 형세였다. 그러나 민족을 위한 애국심이 맨주먹의 백성을 용감한 혁명가로 만들었다. 우리 문학에서는 이러한 청년(소년)상이 대개 순결한 희생양의 전범으로 묘사된다.¹¹⁾

〈나라에 슬픔 있을 때〉의 서정적 자아 다비데는 현실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을 버린 혁명적 순수주의의 전형이다. 우리가 3·1운동을 소년 혁명적 민족·민중운동으로 규정하더라도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한 평가가 이제는 하나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소년 혁명가 유관순은 역사의 실체이자 순결한 애국행위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감정,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문자에 의해 감동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다비데는 유관순일 수도 있고, 이름없이 사라져간 3·1운동의 어떤 청년일 수 있다.

이와같이 3·1운동은 살아있는 현재이다. 우리는 이런 현재성을 「3·1기념시집」의 도처에서 발견한다.

11) 신문문이 4·19를 노래한 시가 좋은 예이다. 4·19혁명의 대열에 뛰어드는 학생들을 다윗(다비데)으로 부르고 있는 점은 이용악과 같이 흥미롭다.

서울도 / 해 솟는 곳/ 동쪽에서부터/ 이어서 서남북/ 거리거리 길 마다
손아귀에/ 돌 벽을 알 부릅친 채/ 떼지어 나온 젊은 대열/ 아! 신화 같이
나타난 다비데 군들.

혼자서면/ 야망 태우는/ 목동이 아니었다/ 열썩/ 백썩/ 천썩 만썩

어깨 맞잡고/ 팔짱 맞기고/ 공동의 희망을/ 태양처럼 불태우는

아! 새로운 신화같은/ 젊은 다비데군들. (〈아! 신화같이 다비데군들?에서〉)

첫 닭이 울었는지 닭은 기우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뒷동산에 부엉이 소리는 들린듯도 하웁니다
 두루마기며 바지며 흙투성이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둘러앉아
 왓자지껄하든 이는 하나도 누군줄 모르겠습니다
 돌들고 몽치들고 떼지어 가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상했다는 이야기, 껏 속에 이내 사웁니다

다음날이었었는지 또 그 다음날이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 짓밟어 형상마자 없새이 시체뎀이 속에서
 겨우 찾었더는 아래대 사는이
 들것에 메어와 상여로 가든양 스은 하웁니다

놈들 허우장 큰 胡馬 대추나무에 매어놓고
 구두발길로 창문 바스며 총칼 견주고
 상하여 누어계신 동네어른들 막우 끌고가든대
 안악네 목메어 우는 사품에 영영 나도 울었나이다.

— 김상원의 〈追想〉¹²⁾

정성들여 지은 朝飯을 들고 늙은 어머니는 獄으로 갔다
 가슴속에 사모친 오직 한가지, 하늘이 도와 十年이고 百年이고
 獄中에 아들을 두드래도 살려만 주기 願이었다.

무뚝뚝하든 看守, 다섯 해 긴 歲月, 人情이 바워도 녹이는가 親切
 하게 어머니를 데리고 어떤 房으로 들어갔다.
 房 한구석에 놓인 箱子
 〈이 箱子를 열어보오 어제 아들이 死刑 받았소〉

12) 조선문학가동맹시부 편, 「三一紀念詩集」(건설출판사, 1946) p.p. 16-17.

風浪을 만난 배처럼 房은 흔들리었다. 어머니는 쓰러졌다.
房안은 무덤속보다 고요했다.

— 임병철 〈三一節아침〉에서¹³⁾

인용된 두 시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무명 애국자의 순결한 죽음에 대한 형상화이다. 〈추상〉에서는 돌맹이와 망치를 들고 놈들과 맞서다 죽은 젊은 투사의 내력이고, 〈3·1절 아침〉은 5년간 옥바라지를 한 어머니의 정성도 아랑곳 없이 결국 사형당하고 만 한 청년의 비극적 삶이다. 이런 점은 〈나라에 슬픔 있을 때〉를 지배하는 포에지와 일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용악이나 김상원 임병철의 작품은 해방에 대한 막연한 감격을 노래하거나 새로운 현실의 도래에 대한 시인의 사상적 관념을 토로하지 않는다.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것을 벗어나려했던 우리들의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생동적인 구상체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 이런 점은 이 항의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아직도 적대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서 볼 때 역사의 현실적 재현이란 의미를 준다. 이런 작품의 현재성이 문제되는 것은 이런 소재에 기인한다.

조선문학가동맹측의 시인들이 해방이란 혼란기에서도 큰 중단없이 새로운 존재로 갱생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같이 진보적인 대중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을 늦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0년대의 이용악이 지녔던 현실안은 대중적인 투쟁성이 거세된 좌절의 모습이었다. 〈전라도 가시네〉 〈북쪽〉 〈하늘만 꿈구나〉 같은 시가 그렇다. 그러나 〈나라에 슬픔 있을 때〉에는 현실을 갱생하려는 포에지가 도사리고 있다. ‘다뷔데’란 소년 영웅이 바로 그 증거이다. 한편 김상원의 〈추상〉과 임병철의 ‘어떤 할머니의 추억’이라는 부제가 붙은 〈三一節아침〉도 비판적 리얼리즘이 속성으로 하는 어떤 가능성은 결하고 있지만, 대중에게 보이는 적극적인 관심 곧, 민족의 운명을 감당해야 했던 역사적

13) 같은 시집, p. 39, 이 시의 부제는 —어떤 늙은 할머니의 追憶— 이다.

현장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시의식이 뚜렷하다. 〈3·1기념시집〉의 현재성이 논의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

2. 「三一紀念詩集」에 나타난 시의 보편성

1945년 8.15가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이고 광복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혼란이었다.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종식되었다는 사정에서는 전자의 표현이 옳고, 1945년을 기점으로 남에는 미군, 북에는 소련군이 국토를 점거하고, 민족해방투쟁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좌·우로 대립되면서 새로운 상황 앞에 힘의 재편성을 복잡하게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는 후자와 같은 진단을 할 수 있다.

본단의 경우, 해방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 조선문학건설본부가 좌파문인들의 주도하에 결성되었고, 그 해 9월 17일에는 조선프로레타리아문학동맹이 역시 좌익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그러자 우파 문인들도 9월 18일 중앙문화협회를 조직하였다.

「三一紀念詩集」을 간행한 조선문학가동맹은 1945년 12월 13일에 성립되었다. 이 동맹 결성에 산파역을 한 사람은 중국연안으로 망명을 갔던 국문학자 金台俊이다. 그는 좌·우익이 함께 참여하는 문인단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45년 12월 3일 양쪽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열렸고, 6일에는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었으며, 13일에는 합동총회를 개최하여 조선문학가동맹이란 문인단체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조선 문학가동맹은 좌익중심의 문인단체가 되고 말았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946년 2월 8, 9양일간 YMCA강당에서 열린 문인대회이다. 이 대회에서 선출된 임원 명단을 보면, 위원장에 홍명희, 부위원장에는 이기영, 한설야, 이태준 그리고 서기장은 권환이다. 모두 좌익이다. 당시 문인들의 이런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가 1945년 12월에 우익 문인단체인 中央文化協會에서 출판한 「解放紀念詩集」과 좌·우익이 아직 갈라지지 않은 시기의 조선작가동맹에서 내놓은 「三一紀念詩集」이다.

우리가 「三一紀念詩集」에서 아직 인간의 원죄의식에서 고민하고 있던 청년문사 徐廷柱의 〈革命〉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정에 근거한다.

조개껍질의 붉고 푸른 문의는
몇 千年을 혼자서 용솟음치든
바다의 바다의 소망이다
가지가 찢어지게 열리는 꽃은
날마닥 여기와서 소근거리든
바람의 바람의 소망이리라

이 검붉은 징역의 땅우에
洪水와 같이 밀려오는 革命은
오랜 하늘의 소망이리라

— 〈혁명〉전문¹⁴⁾

검붉은 징역의 땅 우에 핀 하늘의 소망이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민족의 쫓겨, 3·1 독립운동이고, 그것이 혁명이란 명제는 미당의 시에서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모티프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당의 청년기는 자학적 표백, 원죄의식으로부터의 탈출이란 명제 앞에 자기 스스로를 내던진, 다른 것 생각할 수 없는 피 냄새 풍기는 세월이었다. 그렇지만 46년 3월, 문득 민족의 봉기 3·1 독립운동은 바다의 소망, 바람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고, 그 소망이 실현됨으로써 검붉은 징역의 땅에 새 세계가 열린 때라고 고천하고 있다. 이런 기원은 이 땅이 그야말로 가식 없이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임병철의 〈삼일절 아침〉이 또한 그러한 과거사를 생생히 형상화하고 있다.

14) 같은 시집, pp. 46-47.

精神을 차려 다시 일어난 어머니 그는 怒한 勇士보다 強했다.

팔을 걷고 箱子뚜껑을 열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에 만짐을 받을수있는 自由를 얻은 아들이 여기 놓였다.

〈아들아!〉 눈물 섞인 어머니의 부름이었다.

그입에서는 붉으스레한 피스물이 흘렀다.

말은 없다. 永遠히 — 그러나 말보다 힘찬것이 있다.

— 〈어머니 인젠 어머니아들이 아닙니다, 祖國의 아들이 되어 지금 갑니다.〉

蒼白한 그 입술 움직이는듯 목에는 한줄기 붉은 刑繩자욱, 빛나는 勳章보다 더 뚜렷 하다.

부름뜬 怨恨에 찬 눈! 그눈을 감기는 어머니의 마음.

夕陽, 잔잔한 물결우에 바람이 일어 다리우에 선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흘흘어 놓는다. 그 마음까지도.

欄干을 짚고 발을 다리밖으로 내밀때

〈어머니!〉

뒤에서 부르는 귀익은 목소리.

분명히 죽은 그아들이, 열두세살스적 그모양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달려와 가슴에 안긴다.

— 〈삼일절 아침〉에서¹⁵⁾

일제 강점기 압제받던 민족의 참상이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된 시를 필자는 아직 읽지 못했다.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서사성, 진솔한 표현, 극적 구성 등이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든다. 三代에 걸친 한 가족사가 생생하게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 시에는 할머니, 아들, 손자 3대가 나온다. 이제 80을 넘긴 할머니가

15) 같은 시집, pp. 40-41.

3·1절 아침 손자들을 식탁 주위에 둘러 앉혀 놓고 털어놓는 집안 내력 — 민족 운동하다 비명에 간 삼촌, 또는 큰아버지, 소년 죽음 — 이 서사화 되어 있다. 시의 서사화는 자칫 어휘에서 오는 긴장미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그러나 〈三一節 아침〉은 그렇지 않다. 기승전결의 극적 구성이 그런 약점을 보완하고 있음으로써이다. 특히 마지막 단락에 환영으로 처리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의 만남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어, 그야말로 검붉은 징역의 땅 위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다 참척을 보던 바로 그 현실이다. 「三一紀念詩集」에는 또 다른 三代의 비극이 소재가 된 작품이 있다. 신석정의 〈三代〉이다.

벼슬을 잃으신 할아버지는
 벼슬과 나라를 고소란히 斷念하면서
 술과 친구와 글에 묻히어
 말성많은 세월을 잊은듯이 보내시더니

나라를 잃으신 아버지는
 육친도 벗도 고향도 斷念하면서
 어무찬 설움에 큰뜻을 세우시고
 밤스길로 밤스길로 國境을 넘어가시더니……

에미도 애비도 잃어버린 자식은
 한때 제몹까지도 斷念하면서
 갈려진 하늘을 목메이게 呼吸하더니
 모조리 斷念하기를 서로 盟誓도 하였더니라.

— 〈三代〉 전문¹⁶⁾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고, 집안은 풍지박산이

16) 같은 시집, pp. 48-49.

되던 내력을 다루고 있다. 이런 비극적 가족사는 아직도 민족사에 살아 있다. 안중근 의사 첫 전기 「근세역사」가 그렇다. 우리는 ‘부친은 의병을 모집’하고, 아들은 ‘독립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란 기사를 읽으면서 그가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이며, 그의 가족사 또한 살아 있는 민족 말살 정책사의 전형임을 재인식했다.¹⁷⁾

작품을 인용한 세 시인 중 서정주와 신석정이 걸어 온 시력은 설명이 필요 없다. 이 두 시인이 평생을 오직 예술로서의 시만을 써 온 대표적인 시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일절 아침〉의 임병철은 해방기 시단에서 좌익 문인으로서 활약을 하다가 종적이 없는 시인이다. 지금은 휴전선이나 3·8선 근처를 원혼으로 떠돌런지 모른다. 하지만 이 세 시인이 우익이든 좌익이든 순수시를 썼던 참여시를 썼던 그런 복잡한 이력과는 관계없이 「삼일기념시집」에 나타나는 시의식은 동일하다. 서정주가 단숨에 읊조린 듯한 〈혁명〉, ‘이 검붉은 징역의 땅 우에/ 洪水와 같이 물려오는 革命은/ 오랜 하늘의 소망이리라’란 쇠구와 신석정이 ‘육친도 벗도 고향도 단념하면서/ 어무찬 설움에 큰뜻을 세우시고/ 밤스길로 밤스길로 국경을 넘어가시더니’와 ‘분명히 죽은 그 아들이, 열두세 살스적 그 모양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달려와 가슴에 안긴다’(임병철)는 시의 속뜻이 궁극적으로는 민족 해방을 겨냥한 참여시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소망, 밤길로 국경을 넘는 일, 죽은 아들의 환영은 독립이란 민족적 과업 수행을 드러내려는 메타퍼이다. 이런 점에서 「삼일기념시집」은 단순한 기념 시집, 행사 시집으로만 남지 않는다.

3. 「三一 紀念詩集」과 해방기 문학사의 자리

일반적으로 해방기 한국 문학은 좌우의 대립, 이데올로기 충돌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문학사 역시 그렇게 기술한다. 그러나 바로 위에서 고찰

17 동아일보, 1995. 2. 13 (월), 문화면 참조.

했듯이 「삼일기념시집」이 주제면에서는 참여시로 분류될 예술로지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제재를 형상화하는 발상이 탈이념적인 갈래와 이념적인 갈래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서정주의 〈혁명〉, 신석정의 〈三代〉에서 이미 확인했다. 이런 점에서 「삼일기념시집」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넘어서는 해방기 시문학의 기점적 성격을 띤다.

해방기 시의 두드러진 경향은 당대의 김기림이 지적했듯이 감상주의와 개념화의 경향, 그리고 서술적 선동시 혹은 기념행사시의 조류이다. 그런데 「삼일기념시집」은 이런 갈래만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정주, 신석정과 김용호 등의 시는 즉물적 감상 토로, 감정의 과다 노출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권환, 임화, 박세영, 오장환의 시가 개념화와 감상성으로 나타난 면과 다르다.

시인의 사회적 인식 및 실천이 시의 형상화 과정과 제대로 결합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점이라고 할 때, 〈혁명〉 〈三代〉 〈해마다 피는 꽃〉 등은 기념행사시의 한계를 뛰어 넘는다. 김용호의 〈해마다 피는 꽃〉을 잠시 살펴보자.

 뽕죽한 창칼아래
 세월이 흐르고
 묵묵히 겨레의 슬픔이 흐르고

 되돌아 봄이 오면
 고개숙인 할미꽃
 우리들 모습인양 괴로워

 남몰래 주고 받은
 어둠속 우리들의 얘기는
 땅속 밑으로 밑으로만 파고 들었다

이윽고 강건너 마을에
 셋별하나 꼬리를 달고 흐르고
 우리들만이 아는 눈스짓이 흐르고

자는듯 꺼진 봉화산 그자리에
 깜쪽같이 불이 붙었다

(19연 생략)

깃들인 제비 아직 강남에 머물고
 산과 마을에 꽃향기 풍기지 않는 이른 봄

우리들 가슴속에서
 고옴게 간직하는 겨레의 꽃이
 해마다 해마다 피었느니라

— 〈해마다 피는 꽃〉에서¹⁸⁾

할미꽃에 투영된 정서가 조금도 넘치지 않고 담담하다. 하지만 창칼아래 흐르던 세월과 슬픔이 할미꽃의 뿌리와 함께 파고들던 땅, 그 봉화산에 불이 붙어 고을고을을 태우고 마침내 모든 굴욕의 죄사슬과 모든 압박의 굴레를 메어쳐 산산 조각을 내는 민족 운동의 불길로 전이되는 시상은 「삼일기념시집」의 여느 작품과 다르지 않다.

8·15직후의 일년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인의 사회 참여가 많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든 기념시, 행사시, 추모시를 써야 했다. 이것은 시가 예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격변하는 사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 행동으로 존재하는 형태였다. 이런 점에서 해방기의 시문학을 모두 참여 문학으로 본 이 항 서두의 논조는 옳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해마다 피는 꽃〉은 만세 소리를 외

18) 같은 시집, pp. 18-24.

치는 데 급급한 그런 참여시가 아니다. 해마다 봄이면 피는 산골 양지의 할미꽃과 기미 3·1 독립운동이 병치(diaphora) 기법을 이루고 있는 서정시이다. 겨례의 꽃, 할미꽃이 아직 산과 마을에 꽃향기 풍기지 않은 이른 봄에 핀다는 진술은 할미꽃과 기미 3·1 독립운동을 등치시킨 시상이다. 이렇고 보면 결국 기미독립운동에 대한 찬미가 된다. 그러나 이 시는 이렇게 순수하게 이질적인 두 요소를 나란히 놓아(juxtaposition) 외견상 대립 상태의 요소를 독특한 상호 관계로 시상을 끌어올렸다. 곧 비장하고 엄숙한 어조가 되었다.

한편 「삼일기념시집」에 나타나는 기념시, 행사시의 성격 역시 대단하다. 권환, 임화, 박세영, 오장환 등은 해방기 이 방면의 시를 많이 쓴 시인들이다. 박세영이나 권환 등의 시는 개념화의 성격이 강하고, 오장환, 임화의 시는 감상성이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의 시는 과도하게 투쟁 의지를 강조하여 관념성을 노출시키는 한계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김기림, 김상원, 이훈 등은 앞의 세 시인만큼 현실과 대하는 시인의 정서적 대응이 관념적이지는 않다.

사실 이런 발언은 논증을 한 후에 할 소리다. 그러나 우리가 김기림의 〈영광스러운 삼월〉을 그 일부분이라도 읽게 되면 이런 지적이 과히 빛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

젊은 삼월달 〈아네모네〉 곱게 타는 달은 우리들의 사랑
無知한 世紀의 岩壁에 피로 쓴 아름다운 抗議
흐린 하늘과 어지러운 밤과 沙漠에 올리던 太陽의 豫言者
일어나라 — 웨치는 목련 소리였다
인제 三月은 꺼질 줄 모르는 燄火불
우리들의 앞날 困하고 괴로운 먼길에서
落心과 懷疑 卑怯의 그림자

일일이 살워버리는 거룩한 불꽃이어라

— 〈榮光스러운 三月〉 마지막 연¹⁹⁾

이 시의 톤은 기념시류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강건체적 어조가 아니다. 가령 삼월은 아네모네의 꽃이 곱게 타는 사랑의 달이란 첫 행과 둘째 행 '세기의 암벽에 피로 쓴 아름다운 향의'가 그러하다. 아이러니컬한 대립 구조이다. 외연대로 하면 3월은 아름답기만 한 시간이 된다. 그런데 그 삼월을 하나는 아네모네가 피어 아름답다고 했고, 다른 하나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암벽에 피로서 향의를 쓴 달이라 아름답다 했다. 하나의 현상에 대한 상이한 인식이다. 그래서 분별있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말이 못되고, 우리의 예상도 되었는다. 말해진 것과 의미된 것에 차이가 있다. C.카이더 콜웰이 말하는 그런 아이러니의 구조이다.

이런 시의 톤은 "不幸한/同胞의/머리우에/自由대신/'南朝鮮/民主議院'의/旗ヲ발이/느려진"(임화, 〈삼월일일이 온다〉)나, "거리에서도/ 마을에서도/산마루텠이에서도/온 조선은 만세소리" (박세영, 〈봉기〉)와 같은 개념화된 진술과 다르다. 또 다음 시행과 같은 오장환의 감상성과도 구별된다.

八月十五日

그 울음이 내쳐 따라왔다.

빛나야 할 앞날을 위하여

모든 것은

나에게 지난일을 도리키게 한다.

그러나 나에겐 울음 뿐이다.

몇 사람 귀 기우리는대에 팔리어

나는 울음을 일삼어 왔다.

19) 같은 시집, p. 15.

- 〈나의 길〉 제 4연에서²⁰⁾

점점 악화되어 가던 객관적 정세와 일제의 압박 속에서 살았던 세상을 역동적으로 자기화 한다기보다 오히려 불리한 현실과 마주했던 시인의 정서가 평면적으로 감상화되고 있다. 김기림이 보여주고 있는 아이러니의 구조와는 확연히 대조된다.

III. 결론

「三一紀念詩集」은 1946년에 간행된 몇몇 문제의 시집들, 곧 「해방기념시집」「바다와 나비」「前衛詩人集」「心火」「凍結」「陸史詩集」「病든 서울」 등과 함께 해방기 한국시문학의 성격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는 가설 밑에 그 대표작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三一紀念詩集」은 역사로 남아있는 민족운동을 문학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민족문학의 한 획을 긋는다. 뿐만아니라 이 시집은 기념시집이지만 세련된 은유에 의한 시적 보편성 획득으로 기념시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문학적 성숙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런 점은 이용악의 〈나라에 슬픔 있을 때〉에서 확인된다.

둘째, 이 시집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넘어서는 해방기 시문학의 기점적 성격을 띤다. 해방기 시의 두드러진 경향은 당대의 김기림이 지적했듯이 감상주의와 개념화의 경향, 그리고 서술적 선동시 혹은 기념 행사시가 주류이다.

「三一紀念시집」은 이런 갈래만이 아니다. 서정주, 김용호의 시는 즉물적 감상 토로, 감정의 과다노출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권환, 임화, 오장환의 시가 개념화와 감상성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르다. 시인의 사회

20) 같은 시집, p. 52.

적 인식 및 실천이 시적 성숙화 과정을 원만히 거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점이라고 한다면, 徐廷柱의 〈革命〉, 金容浩의 〈해마다 피는 꽃〉, 林炳哲의 〈三一節 아침〉은 기념행사시의 한계를 뛰어 넘는다.

미당의 청년기는 자학적 표백, 원죄의식으로부터의 탈출이란 명제 앞에 자기 스스로를 내던진 다른 것 생각할 수 없는 피 냄새를 풍기는 세월이었다. 하지만 시 〈혁명〉은 1919년 3·1독립운동을 바다의 소망, 바람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라고 고천하고 있다. 이런 기원은 검붉은 정역의 땅으로 화해가던 당시의 우리나라 형편을 그야말로 가식없이 드러낸 명편이다.

김용호의 〈해마다 피는 꽃〉은 3·1운동과 할미꽃을 나란히 놓음(Juxtaposition)으로써 외견상 아주 이질적인 두 요소를 서정적 긴장관계로 끌어올려 비장하고 엄숙한 어조가 되었다.

임병철의 〈三一節 아침〉은 삼대에 걸친 한 가족의 참상을 기승전결의 서사적 구성을 통해 묘사하였다. 이런 점은 시의 서사화가 자칫 시적 긴장을 늦출 우려가 있다는 일반론과는 달리, 참적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 대한 적나라한 검증이라는 점에서 한국문학사가 기록해야 할 참여시이다. 辛夕汀의 〈三代〉도 삼대의 가족사를 살아있는 민족말살 정책사로 전형화했다는 점에서 이 시인의 일반적 성향과는 다른 작품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金起林의 〈榮光스러운 三月〉과, 吳章煥의 〈나의 길〉은 아이러니칼한 구조(〈영광스러운 三月〉), 또는 서정적 자아와 세상사의 병치(〈나의 길〉)란 기법을 통해 민족적 사건이 형상화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작품이다.

〈三一紀念詩集〉의 나머지 작품은 기념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19년의 3·1민족운동에 대한 민족의식과 역사가관이 집중적으로 투영되었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사는 이 시집을 解放期 詩文

學의 제일 앞자리에 놓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들은 앞으로 해방기의 여러 문제시집들과 대비속에 더욱 확대, 검증, 고찰될 것이다.